信 心과 精誠으로 青銅文化의 脈을 이어가는 匠人들의 作品
불상 · 탱화 · 범종 전시관
전화:02-735-1045 / 팩스:02-735-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식 / 등록번호 · 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8년(서기 1994년) 12월 28일 수요일 (주간)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부처는 곧 이 마음이므로
어찌 먼 데서 찾으랴.
(수심결)

법회 안내

청우사 (02)531-9542
천수경 강의 매주 일 오전10시
초청강연 매주 수 오후7시
초하루기도 매월 초하루(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정법사 (02)762-385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 · 고등부법회 일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칠보사 (02)732-7498, 1424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 · 고등부법회 일 오전11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장년법회 매월 둘째, 셋째 일 오전10시
가사림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정각사 (02)742-123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 · 고등법회 일 오전11시
장년법회A 매월 둘째 일 오후6시
장년법회B 매월 셋째 토 오후6시

경주 고불선원(0561)746-1481
참야정진 매주 토 오후9시
교사법사회 매주 수 오후6시
거사림회 매주 목 저녁7시50분
가족법회 첫째, 셋째 일 오전11시
합동법회 매월 첫째, 셋째 목 오전10시
지장회 매월 18일(음)오전10시

부산한마음선원(051)402-7077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학생부법회 매주 토 오후5시
한마음요전법회 금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여교사신행회 둘째, 넷째 화 오후6시
거사신행회 화, 목 오후7시
신입신도법회 둘째, 넷째 목 오전11시

광주 무각사(062)371-0607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초암장교위안법회 수 오후7시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 기난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종교인구 줄었다

3년만에 4% 감소 … 불교인은 3%

불자 고령화 여전, 법회 참여율 증가

통계청 조사

종교인구가 줄고 있다.

우리나라 15세이상 인구중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49.9%로 이는 지난 91년 조사된 54%보다 4%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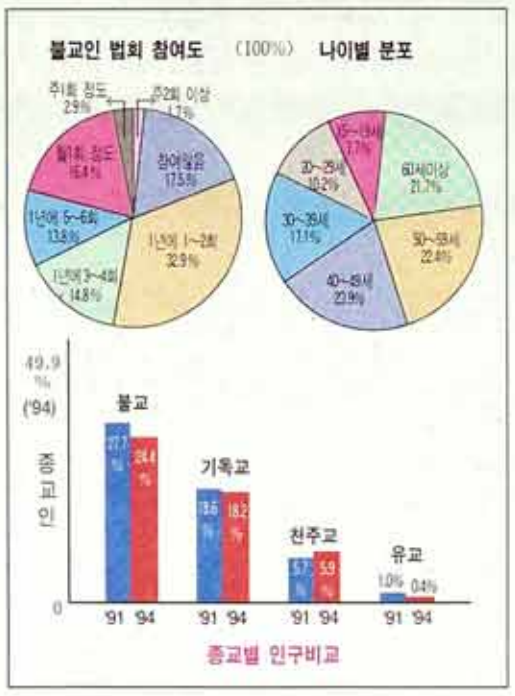
이같은 사실은 통계청 사회과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 전국 약 3만2천5백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국민생활, 국민의식의 실태와 수준을 파악해 이를 국가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3년에 1번씩 실시되는 사회통계조사는 전국의 만 15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소득 · 소비와 △사회부문 으로 나뉘어 사회부문에서 △종교인구 및 집회 참여도가 표본조사됐다.

불교인은 91년 조사된 것보다 3.3% 떨어진 24.4%로 나타났으며 기독교(18.6→18.2%) 유교(1.0→ 0.4%)신자 역시 감소되고 있으며 천주교만은 91년보다 0.2% 늘어난 (5.7→ 5.9%) 수치를 보였다.

〈관련기사 2면〉

91년 사회지표와 비교해 보면 전체종교인구는 남자가 46.8→ 41.9%로 4.9% 줄었고 여자가 60.5%→ 57.4%로 3.1% 줄었다.



불교는 남자(24→20.3%) 여자(31→28.2%) 신도 모두 줄었고, 연령별로 살펴보아도 고르게 줄고 있다.

한편 종교인구의 51.2%가 평균 월 1회이상 종교집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91년의 47.1%와 비교해 볼 때 4.1% 늘어나 종교인구는 줄어든 대신 참여도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는 법회 참석등 집회참여도가 주 1회이상(주 2회포함)이 4.6%로 '91년(4.2%) 보다 0.4% 늘었고, 월 1회까지 포함하면 21%로, '91년의 17.2%보다 3.8% 늘었다. 이는 도심포교당을 중심으로 일요법회 등 정기법회가 정착하고 있고, 사찰에서 열리는 다양한 법회로 인해 신도참여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기독교와 천주교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주 2회포함)이 각각 77%와 64%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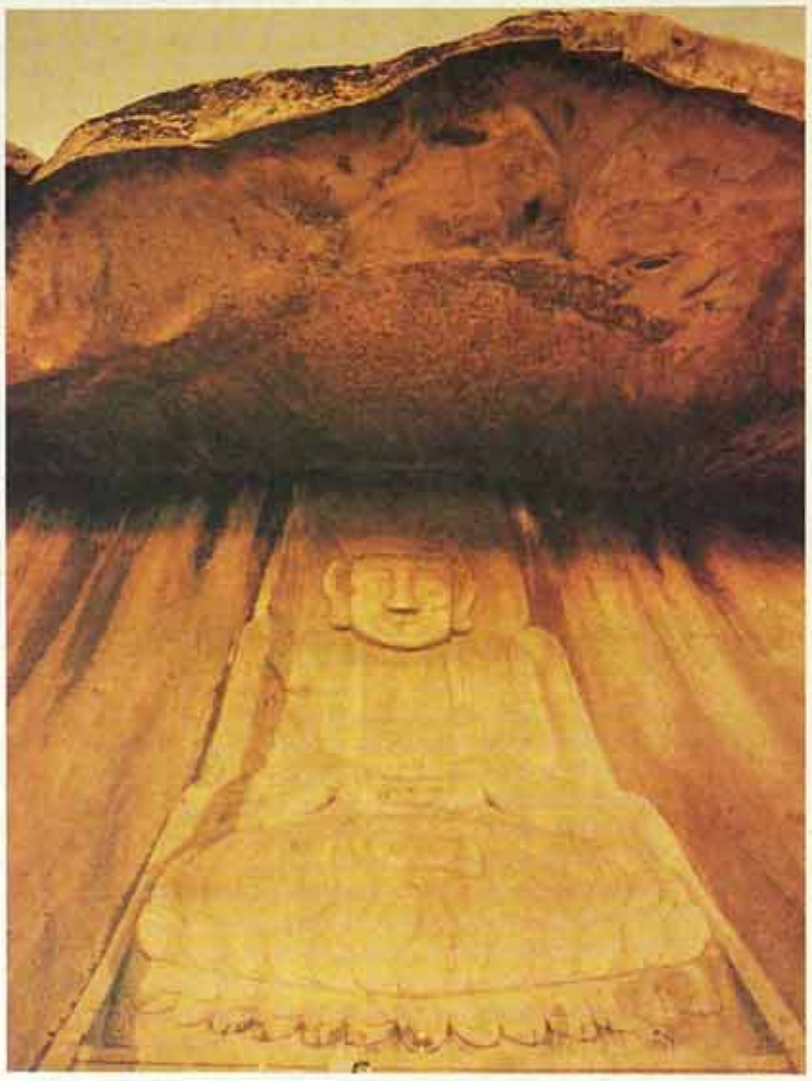
한편 불교는 여전히 고령화 저학력화를 보이고 있다.

종교를 가진 15~19세의 기독교 천주교인이 불교인 보다 2배 반이 넘는 반면 50대 종교인은 불교가 36%로 가장 높았다(기독교 14.9%, 천주교 5.5%). 학교 이하 종교인 54.1% 가운데 35.2%가 불교를 믿고 있으며 대졸이상의 종교인 52.6% 가운데는 불교가 17% 기독교 24.3% 천주교 10%로 나타났다.

종교인 조사때면 늘 보이듯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고령화로 갈수록 불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독교등 타종교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졸이상의 지성인들이 사회각계의 지도자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볼때 지성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의 시급함이 여전히 대두되고 있다.

(이경숙 기자)



서방정토의 빛으로 한해가 저물고 · · ·

갑술년이 저무는 서해 바닷가. 장엄한 낙조가 중생의 서원과 애환을 어루만지시는 관세음보살님의 법신을 물들였다. 시비세계의 온갖 슬픔과 기쁨을 한데 묶혀 찬란히 태워내는 저 서방정토의 법광 속에 또 한 해를 묻어두고 우리는 겸허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새 아침을 설계하자.

〈사진 : 강화 보문사에서 박재완 기자〉

불교인권위, 사형제폐지위 신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 산하에「사형제폐지위원회」가 신설됐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새해 사업안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사형제 폐지를 적극 주창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과 함께 ▲불교인권 법당 마련을 위한 기금마련 방안으로 전시회, 불교인권학교, 여성불교학교 개설 ▲기독교 천주교 인권위 · 국제인권위 · 통일단체 · 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등의 사업을 펼쳐 나간다고 밝혔다.

연말연시를 부처님과 함께 12 · 13면
'94 불교계 결산 · · · 종단 선정 10대뉴스 14면

목어

낙조의 아름다움

낙조는 아름답다. 24시간 동안에 일어난 숱한 사건과 사연을 다 머금은 낙조가 저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

기쁨과 슬픔, 고뇌와 사랑, 용서와 화해가 용해되어 있는 삶의 수채화로서 내일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마치 아름다운 낙조가 서쪽 하늘을 물들이듯 갑술년이 우리들 가슴에 낙조를 드리우면서 지고 있다.

1994년은 유난히 아픔과 시련이 컸던 해이다. 불교계의 경우 '조계종의 4월'을 비롯해서 뚜렷한 명암을 많이 남겼다. 교계 밖에서도 새삼 열거할 일이 있다.

'한탄도 자랑이리, 고뇌도 법열이리.' 그렇다. 한탄이 자랑이 되고, 고뇌가 법열이 되려면 우리는 빼아픈 자기비관과 가슴 저미는 참회를 해야겠다.

하고 싶지 않은 대형 사고들이 줄을 이었다. 이제 우리는 낙조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할까.

어느 시인의 노래에 이런 구절이 있다.

'비록 무거운 짐을 지었더라도 뉘우치고 다시 범하지 않으면 계율을 따르는 일이 되나니 그 죄의 뿌리가 뽑혀지리라.'

〈증일아함경〉의 말씀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장아함경〉에서 이렇게 일러주신다.

'말로는 그 허물을 모두 뉘우쳤다고 하지만 안으로 그 마음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원망하는 마음을 쉬어 착한 마음을 닦는다고 말하리.'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자기를 들여다 보자. 그러면 저절로 선(善)해 지리라. 그때 희망찬 새해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목길가옥관 오대산 월정사(月精寺) 국보 · 성흥사(聖興寺) 서울 정로교회 서울 개인주택 부산 관광호텔

전통기와의 멋과 품격을
풍산 한식銅기와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동기와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찰, 고건축물 등 한식가옥과 주택의 미를 추구하는 기념건축물, 일반 가옥 등에 잘 어울리는 자붕재입니다.

■ 내식성이 뛰어나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풍산 한식 동기와는 시공후 짧은 시간내에 표면에 치밀한 조직의 산화막을 형성, 부식을 막아주므로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또한 내후성과 방수성이 뛰어나 어떠한 기후 조건과 변화에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 눈, 비,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 줍니다.

■ 고색창연한 색상과 전통미를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동기와는 동판 특유의 색상변화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중후한 색상을 이루어 건물에 고색창연한 맛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동판의 우수한 가공성을 이용, 우리기와의 전통적 원형과 풍신미를 완벽하게 재현시킴으로써 고유의 맛을 그대로 살려주고 있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경량입니다.
풍산 한식 동기와는 주요 기와부품을 기계 가공해 제품이 규격화되어 있으며 완전조립식으로 시공이 간편합니다. 또한 기와의 중량이 흙기와의 10분의 1정도로 가벼워 운반이 쉽고 건물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뛰어난 내식성과 내후성, 중후한 색상, 완벽하게 재현된 전통미 그리고 시공이 간편한 풍산 한식동기와로 현대건축물에 전통가옥의 멋과 품격을 살려보십시오.

株式會社 豐山
전화 : 273-3021/9 FAX : 273-3835

풍산 한식동기와로 시공한 대표적 건물 목길가옥관, 오대산 월정사, 구례 화엄사 관광호텔, 마동 칠불사, 부산 관광호텔, 문경 김룡사, 문경 대승사, 부산 복천사, 삼주 원적사, 삼주 극락암사, 국보 성흥사, 서울 정로교회, 서울 개인주택, 제천 김천사, 대구 관음사, 대덕 현불사, 구미 해운사, 나주 흥세대다, 설악 한국도로공사, 여러 월일유업, 대구 대구여중, 서울 화개사